Tzigane for violin and orchestra

- □□_

정보

개요

곡명 : *Tzigane, M. 76 / Rapsodie de concert* (바이올린과 관현악판)

작곡가 : Maurice Ravel (1875–1937)

작곡 시기 : 1922년 구상 , 1924년 완성 및 관현악화

원곡 최초 연주 : 1924년 4월 26일 , 런던 Aeolian Hall, Jelly d'Arányi 바이올린 , Henri Gil-Marcheix 피아노

관현악판 초연 : 1924년 11월 30일 , 파리 , Jelly d'Arányi 바이올린 , Gabriel Pierné 지휘 Les Concerts Colonne로 기록됨 . 10월 19일 암스테르담의 Samuel Dushkin·Pierre Monteux·Concertgebouw 공연을 먼저 기록하는 자료도 있다 .

헌정 : Jelly d'Arányi

장르 : 독주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한 악장 콘서트 랩소디

소요 규모 : 한 악장 , 약 9–12분

IMSLP: Tzigane, M. 76 (Ravel, Maurice)

Wikipedia: Tzigane

Maurice Ravel의 *Tzigane, M. 76*은 독주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한 악장 콘서트 랩소디다 . 작품은 긴 무반주 `Quasi Cadenza`로 시작해 관현악이 들어오는 중간부와 빠른 종결로 이어진다 . 이 글은 1924년 관현악판을 중심에 두면서 , 그 바탕이 된 바이올린 ·피아노판과 luthéal판의 제작 ·초연 순서를 함께 설명한다 .

출판 정보와 세 판본

Ravel은 1922년 런던에서 Jelly d'Arányi의 연주를 들은 뒤 헝가리풍 선율을 더 요청했고 , 1924년 봄 바이올린 ·피아노판을 완성했다 . Durand의 작곡가 카탈로그는 바이올린 ·피아노판 , luthéal을 부착한 피아노판 , 바이올린 ·관현악판을 별도 버전으로 구분하고 , 모두 `Rapsodie de concert`라는 부제를 붙인다 . d'Arányi는 이 작품을 헌정받았으며 원곡 초연에도 참여했다 .

바이올린 ·피아노판은 1924년 4월 26일 런던에서 처음 연주되었고 , luthéal판은 Durand 기록에 따라 10월 15일 파리 Salle Gaveau에서 Samuel Dushkin과 Beveridge Webster가 초연했다 . 관현악판은 1924년 7월

Ravel이 자필 총보를 마쳤고, Durand와 Boston Symphony Orchestra는 11월 30일 파리 공연을 첫
관현악판 연주로 기록한다. 암스테르담의 10월 19일 공연을 관현악판 최초로 보는 기록과 날짜가 갈리므로, 두 공연은 서로 다른 출처의 초연 기록으로 남는다.

IMSLP에는 1924년 Durand의 피아노판과 luthéal 지시가 포함된 판, Ravel의 관현악 편곡 총보와 파트가
따로 올라 있다. Morgan Library가 소장한 1924년 7월 자필 관현악 총보에는 바이올린 독주 도입 58마디가 총보에 쉼표로 표시되어 있다. 따라서 관현악판의 독주 도입은 피아노판의 한 마디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별도 독주부를 지닌 관현악 편곡으로 읽어야 한다.

소요 시간

Durand 카탈로그는 세 버전을 약 12분으로 제시하고, Los Angeles Philharmonic은 관현악판을 약 9분으로 제시한다. 템포와 판본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면 전곡은 약 9–12분이다. 한 악장 작품이므로 악장별 시간은
따로 나누지 않는다.

편성

관현악판은 다음과 같은 독주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사용한다.

목관: 플루트 2(제 2플루트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금관: F조 호른 2, C조 트럼펫 1
타악기와 건반: 타악기 1명 (글로켄슈필 , 충돌 심벌즈, 서스펜디드 심벌즈, 트라이앵글), 첼레스타,
하프 1
현악: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원곡의 luthéal은 피아노에 부착해 침발롬이나 하프시코드에 가까운 금속성 음색을 만드는 장치다. 관현악판에서는 하프와 첼레스타, 글로켄슈필 , 목관과 현악이 그 색채를 나누어 맡으며, 특수 건반 장치의 효과를 관현악으로 다시 배치한다.

한 악장 랩소디의 진행

Quasi Cadenza

독주 바이올린은 낮은 G현에서 출발해 겹음, 하모닉스, 빠른 장식, 글리산도, 왼손 피치카토와 화음을 차례로 펼친다. 이 도입은 뒤의 춤곡적 질주에서 되돌아올 리듬과 음형을 먼저 제시하며, 독주자의 기교와 형식적 출발점을 한데 놓는다. Ravel Edition은 자필 관현악 총보에서 이 독주가 58마디에 걸쳐 진행되며,
오케스트라 첫 진입 앞에 한 마디로 압축되어 기보된다고 설명한다.

관현악의 진입과 색채 전환

독주부 뒤에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 현악과 하프 ·첼레스타가 들어오면서 음악의 매체가 바뀐다. luthéal 판에서 피아노가 만들던 탄현성 ·금속성 울림은 관현악판에서 여러 악기의 짧은 응답과 반짝이는 타격으로

분산된다. 독주 바이올린의 장식은 관현악의 음색 변화와 맞물려, 카덴차에서 예고된 재료를 실제 리듬 운동으로 전환한다.

기교적 확장과 질주

중간 이후에는 빠른 패시지, 이중음, 하모닉스, 글리산도와 왼손 피치카토가 다시 확장된다. 관현악은 하프와 첼레스타의 짧은 색채, 목관의 응답, 트라이앵글과 심벌즈의 타격으로 바이올린의 선을 둘러싼다. 첫 무반주 부분과 뒤의 합주가 같은 음형을 서로 다른 매체로 되돌려 주기 때문에, 작품의 짧은 길이 안에서도 도입과 종결이 하나의 랩소디 곡선을 이룬다.

종결

마지막 구간은 템포와 음량을 밀어 올리며 한 악장 전체를 닫는다. Ravel이 이 작품을 헝가리 랩소디풍의 비르투오소 곡으로 설명했다는 공연기관 해설은, 종결의 속도와 독주 기교를 19세기 유럽의 바이올린 쇼피스 전통과 연결한다. 작품에서 확인되는 ‘집시풍 ’은 특정 민요의 직접 인용이라기보다 , 당시 콘서트홀에서 통용된 헝가리풍 랩소디 어법을 Ravel의 음색 설계로 재구성한 결과다.

d'Arányi를 위한 쇼피스와 판본의 관계
d'Arányi는 Joseph Joachim의 조카손녀인 헝가리계 바이올리니스트였고 , Ravel은 그녀가 지닌 비르투오소 기교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썼다. Boston Symphony Orchestra의 해설은 1922년 런던의 사적 음악회에서 d'Arányi가 연주한 뒤 Ravel이 헝가리풍 선율을 더 청한 사건을 작품의 출발점으로 전한다. 이 배경은 무반주 카덴차가 곡의 입구에 놓인 이유와 독주자의 기술이 관현악판에서도 보존되는 방식을 설명한다.

피아노판, luthéal판, 관현악판은 같은 한 악장 랩소디의 세 공연 매체이지만 동일한 편성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luthéal은 오래 살아남지 못해 일반 피아노판과 관현악판이 오늘날의 주요 연주 형태가 되었고, 관현악판은 Ravel이 1924년 여름에 별도로 완성한 색채적 재설계다. Morgan Library의 자필 총보와 Ravel Edition의 편집 해설은 그 재설계 과정에서 독주 카덴차의 기보와 프레이징이 피아노 초판과 달라졌음을 보여 준다.

주요 자료

Ravel 작곡가 카탈로그, Tzigane (Durand-Salabert-Eschig)

Tzigane 자필 관현악 총보 (Morgan Library & Museum)

Tzigane 편집 해설 (Ravel Edition)

Ravel: Tzigane (Boston Symphony Orchestra)

Tzigane, Rapsodie de concert (Los Angeles Philharmonic)

Tzigane 관현악 총보 (University of Rochester Eastman/Sibley Music Library)